

4월에도 특색있는 학부모 교육 '풍성'

도교육청, 동화연극·놀이법포·달빛학교 등 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4월에도 다채로운 학부모교육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함께 만들어 보는 동화랑 연극이랑'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 도내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일부터 24일까지 중부비전센터 4층에서 흥석찬전 전주시립극단 상임

연출·김정표(푸른숲 대표)가 강사로 나서 동화연극 자원활동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대사처리 및 제시대사 분석'에 대해 강의한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은 5일부터 30일까지 학부모 및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누리지역아동센터의 36개 기관과 단체에서 노현이 외

33명의 강사가 가정폭력 예방과 대처 방법을 들려준다. 학부모 놀이활동가 놀이법포 교육은 8일부터 27일까지 이소영 작가 외 10명이 도교육청 8층 회의실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서 '놀이법 분석'에 대해 강의한다. 한편 신청은 전북학부모지원센터(<http://parents.jbe.go.kr/main/main.jbe>) 홈페이지와 스마트폰(parents.jbe.go.kr)을 통해 희망하는 교육을 선택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교직원 비위' 강력 대응 시사

김승환 교육감, 간부회의서 강조 지역인재전형 기준 강화도 언급

김승환 교육감이 교직원 비위와 관련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 교육감은 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공·사립학교 감사결과 경

미한 사안은 징계처리로 끝이지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성범죄의 경우 100% 예외없이 형사고발로 간다"면서,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고 누차 강조

했다. 또한 성범죄를 은폐·왜곡하는 사립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공립학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립학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도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로 돼 있는 것을 "중학교 3년"까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홍철운 교수 공학교육인증 대상 수상

전북대학교 홍철운 교수(공대 바이오메이컬공학부)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원장김종호)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 우수평가위원 대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국제적 등가성 확보를 위해 조직된 공학 분야 인증기관으로 전국 공과대학을 대상으로 공학교육인증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공학교육인증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평가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우수평가위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익산교육지원청이 지난 3월 28일 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익산영재교육원 개강식을 가졌다.

공학교육인증원은 2018년 인증평가에 참여한 200여 명의 평가위원 중 각 대학별 평가단장, 인증사업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인 홍철운 교수를 비롯해 10명의 우수평가위원을 선정했다. 각 전공분야별 대학교수와 연구소와 산업체 인사가 포함된 인증평가위원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41개 대학 160개 프로그램(학과) 공학교육인증 평가활동을 실시했다. 홍철운 교수는 "공학교육인증 평가위원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공학교육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호 발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잠재력·창의력 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 함양한 융합인재로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은 지난 3월 28일 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익산영재교육원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지도교사,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수경 교육장은 "1년 동안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잠

재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을 함양한 융합인재로 서 주변을 돌보고 이끌어 가는 리더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입학한 익산영재교육원 신입생 136명은 교사추천, 영재성검사, 심층면접 등 3차에 걸친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로 3월 30일부터 11월까지 전공과목, 봉사활동, 현장체험학습,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한편 익산영재교육원은 교육과정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인성, 사회봉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인재양성을 지향하는 영재들을 발굴하고, 높은 학습동기를 토대로 한 탐구 능력과 태도, 개인별 탐구주제 부여 및 프로젝트 학습을 활성화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가 전남 영광스포티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제46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각각 획득했다.

땀과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

전주대, 전국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 '금2·동3' 획득

전주대학교는 지난 3월26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전라남도 영광스포티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제46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각각 획득했다고 밝혔다. 남대부 74kg 박준영 선수(경기지도학과 3학년)가 결승에서 세한대학교 선수와 겨워 초반부터 강한 공격으로 리드하며 16대 14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대부에서는 57kg급 이금영 선수(경기지도학과 3학년)가 결승에서 부산고신대학교 선수를 상대로 윗등한 점수 차이로 RSC승,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80kg급 김동하 선수(경기지도학과 3학년), 68kg급 김민철 선수(경기지도학과 3학년), 63kg급 여준엽 선수(경기지도학과 1학년)도 우수한 기량을 뽐내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준영 선수(경기지도학과)는 "그동안 안 좋은 성적에 매번 경기장에서 우시며 돌아가시는 어머

니께 이번에는 기쁨의 금메달을 안겨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며, "즐거이 땀 흘리며 매순간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성취하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최광근 교수(경기지도학과장)는 "학생들이 동계 훈련에 열심히 임해준 덕분에 2019년 첫 태권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이번 성적은 학생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태권도 선수들은 다른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3월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경북 영천체육관에서 진행된 전국중발태권도선수권 대회에서 68kg급 이인규 선수(경기지도학과 1학년)가 금메달, 63kg급 여준엽(경기지도학과 1학년)선수가 은메달에 각각 입상했다. /정은성 기자

배려와 소통의 언어문화 환경 조성

전주대 국어문화원, 문체부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받아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박기범)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S) 등급을 받았다. 국어문화원 지원 사업 평가는 국어정책사업 관련 전문가 5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전국 19개 국어문화원의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과 금년도 사업 계획을 판단해 3개 등급으로 책정한다. 2019년 국어문화원 지원 사업 평가는 최우수(S) 등급 3곳, 우수(A)등급 7곳, 보통(B)등급 9곳이다. 한편 전주대 국어문화원은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말글에 대한 인식을 제

고하고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사업들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2018년도에는 전북도 방언사전을 편찬해 지역 언어문화의 보전과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올해도 지역민의 국어사용 능력 향상과 배려와 소통의 언어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어 상담과 국어 관련 각종 대회, 국어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와 연계해 한글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이 국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